



## 제6회 임원·지회장·사무장 연수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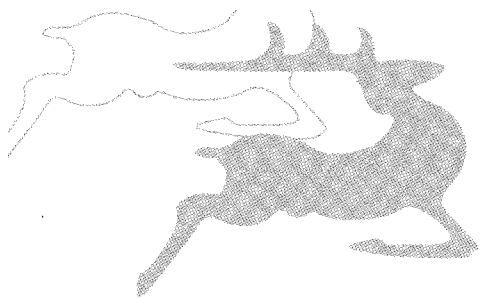
올해로 6번째 실시된 임원·지회장·사무장 연수회가 내외 귀빈을 포함, 전국 80여명의 지회장, 사무장 등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20일부터 21일 양일간 전북 부안 소재 채석강리조트에서 실시된 연수회에서는 양록관련 특강,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 주변 명소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수근 회장은 연수회 개최사를 통해 “양록산업 당면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

결키 위해서는 업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협조,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행사가 양록인 화합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 양록현안 타개를 위한 좋은 고견들이 규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진주산업대학교 진상근·김일석 소장이 ‘사슴고기 활용도 증대방안’이란 주제로, 본회 한은섭 이사가 ‘우수사슴 성공사례 발표’란 주제로 각각 1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실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록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실시된 2004년도 협회회무보고 및 주요 사업계획 설명 및 토론회에서는 양록 당면 현안 및 협회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본회 김수근 회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받았다.

회의 후에는 약 2시간 여의 양록인 친석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및 단합대회 시간을 마련했으며 이튿날에는 양록자

조활동자금 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향후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 양토양록조합 한규성 조합장, 부안군청 정운환 축산계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양록인들과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었다. **한국양록**